계곡 양편이 난대 상록수림으로 울창하게 덮여 있고 높이 5m의 원앙폭포 (돈내코 입구에서 1.5km)와 작은 못이 있어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제주의 계곡을 즐겨보세요.

제주의 백중날(음력 7월 15일)에는 닭 요리와 함께 물맞이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날 물을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돈내코는 백중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물맞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돈내코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시죠? 예로부터 이 지역에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여 돗드르라 하며 돗드르는 지금의 토평 마을의 지명 유래가 되었지요. '돌'은 돼지, '드르'는 들판, '코'는 입구를 내는 하천을 가리키는 제주어입니다. 멧돼지들이 물을 먹었던 내의 입구라 하여 돈내코라 불립니다.

돈내코유원지

돼지豚 들이 물을 먹던 내川의 입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6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120

연중무휴

064-733-1584

아래 지도를 클릭하면 구글맵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